

# 넥슨 '메이플 확률조작' 일부 패소... "이용자에 5% 환불하라"

대법, 넥슨 상고 기각 '최종판결'  
"향후 여러 게임사 확률조작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

게임사 핵심수익 모델 판결에  
시장 생태계에 영향 미칠수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해 넥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게임업계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중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 사례인데다 다른 게임사들을 상대로 한 아이템 관련 소송도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였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



넥슨 사옥 전경. /넥슨

법원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넥슨 측에 구매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넥슨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측에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를 대리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하급심 법원과 여타 기관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여러 게임사들의 확률 조작 사례에 중요한 판단 잣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위 '뽑기'로 불리는 확률형아이템은 게임 내 일정한 확률에 따라 내용물이 취득 후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게임 아이템을 말한다. 어떤 상품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아이템을 구매한다.

사건은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강화 확

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됐다. 큐브를 사용하면 장비의 옵션을 재설정할 수 있다. 당시 큐브는 개당 1200원, 2200원에 판매됐다. 문제는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동일하게 설정됐던 걸 넥슨이 인기 옵션이 될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1월 수원지법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넥슨 측에 청구액의 5%인 57만여원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넥슨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최종 판결로 확정됐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이자 원고를 대리한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게임

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계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넥슨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와 인기 그룹 '뉴진스'의 콜라보 아이템 등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위메이드도 아이템 1종에 대한 확률정보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내용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판결이 게임시장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판결은 2월과 3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717명이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中 기업과 맞손... K의료기기 첫 수출 성과

산업부-코트라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전 개최  
한국 중소기업 16곳 참여, 1대1 상담 진행

#통증치료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중국 수출 경험 부족 등으로 중국 시장 진출에 난항을 겪었으나, 지난해 코트라 주최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수출 상담회'에 참가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얻었다. 코트라 정저우무역관이 바이어와의 상담부터 인증, 물류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한 결과 올해 8월 처음으로 중국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11월 30일 중국 허난성 안양에서 열린 '상위 메디컬 의료기기 전시 상담회'에서 우리 의료기기 기업이 상위 메디컬 바이어에게 의료기기 시연을 하고있다. /코트라

이번 행사에는 우리 중소기업 16곳이 참여해 상위 메디컬 구매 책임자와 1대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제품 홍보 전시 부스를 운영했다. 또 사전 신청한 10개 기업은 상위 메디컬의 중국 전역에서 온 벤더 200명을 대상으로 신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현지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유력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중국 전역에 안정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도 이번 행사에 참여해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요구받는 의료기기 인증 요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험인증 상담 부스를 운영했다.

행사 종료 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인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중소·소상공인 100곳 우수제품 집중할인

중기부 '12월 동행축제' 막 올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2월 동행축제'가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곳곳에서 펼쳐진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가 제품 가운데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사의 우수 소상공인·중소기업 제품을 집중 할인 판매한다.

이와 함께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먼저 1주차 주말인 오는 6~8일에는 서울 홍대건교로(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가 열린다. 국내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2012년 상점가로 지정된 홍대 레드로드는 일 평균 방문객이 8000명에 이르는 곳이다.

중기부는 겨울을 맞아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 강한소상공인 및 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 중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가 이뤄진다.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6~8일) ▲군산&거



을 나눔 동행축제(2~28일) ▲서울망원시장 크리스마스 마켓(2~15일) ▲인천 소상공인우수제품특판전(20~25일) 등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19~22일에는 서울 코엑스에서 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이 선을 보인다. 11곳의 동네상권발전소에서 상권 특색에 맞는 콘셉트로 상권별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유관 협·단체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유통기업 등 36곳의 공공·민간에서도 미혼모 기부금·기부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행사, 백년가계와 함께 나눔행사 등 자발적 온기나눔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한다.

동행축제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진다.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등 총 190여 개 채널에서 최대 50% 할인쿠폰 발행,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 등을 실시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한솔제지, 친환경 소재 '듀라클' 위비건 인증

프랑스 비건인증 이어 두번째

한솔제지의 천연 유래 친환경 소재 듀라클(Duracle)이 위비건(weVegan) 인증을 획득했다.

1일 한솔제지에 따르면 위비건 인증은 GSC글로벌표준인증원이 국내 식품 및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동물 유래 원재료 사용 및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 및 공장 등에 부여한다.

한솔제지의 듀라클은 제품 뿐만 아니라 제조 설비에 대해서도 위비건 인증을 받아 비건 뷰티에 적합한 천연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전망이다.

듀라클은 지난해 국내 제지업계 최초로 프랑스 비건 인증인 이브 비건(EVE VEGAN)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비건 인증을 획득해 국내외에서 명실공히 비건 소재로 인정받았다.

한편, 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동물성 원료를 완전히 배제하고 식물성 원

료만으로 만든 비건 뷰티 제품이 30대 이하 젊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비건인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600억원에서 2022년에는 5,700억원으로 4배가량 성장했으며, 내년에는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듀라클이 비건 뷰티 트렌드에 부합하는 소재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비건 뷰티와 같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친환경 제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 인구감소지역 투자 벤처펀드 217억 조성

중기부 '인구활력펀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구감소지역에 투자할 벤처펀드 217억원을 본격 조성한다. 중기부는 1일 '인구활력펀드' 출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모태펀드가 95억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45억원을 각각 출자해 2개 펀드를 조성한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원

규모 벤처펀드는 내년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구활력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개의 벤처펀드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을 하여 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초 결성 목표액인 200억원도 훌쩍 넘겼다. /김승호 기자